KIA 김호령, '공수 겸장 외야수'로 진화

2015년 2차 10라운드 102순위
공격력 제로…'수비형 외야수'
이범호 감독 특훈·특타 후 '맹타'
"공·수·주 좋은 모습 보이겠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30)이 수비를 넘어 타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수 겸장 외야수'로 진화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의 직접 지도와 꾸준한 특타(특별 타격 훈련)를 통해 타석에서 점차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호령은 지난 2015년 2차 10라운드 102순위로 KIA에 입단했다. 이후 그는 수비 실력 하나로 당시 김기태 감독의 눈에 들어 데뷔 시즌에 1군을 경험했고, 10년간 수비력으로 프로에서 살아남았다.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호령존'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타구 판단과 방향 전환 능력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타격은 늘 약점이었다. 김호령은 데뷔 첫 해부터 1군에서 100경기를 넘게 뛰었고 2년차인 2016년에는 무려 453타수에 들어설 만큼 많은 기회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번의 시즌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즌에서 타율 2할 초반대에 머물렀고, 최근 2년간은 1할대 타율에 그쳤다.

그런 김호령에게 올해 기회가 찾아왔다. 외야수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지고, 이우성과 최원준이 타격 부진에 빠지면서 이범호 감독이 수비 중심의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호령이 수비에서 공을 잡아주면, 투수들도 안정감을 갖고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올시즌 초반에도 김호령의 타격은 여전히 불안했다. 4월 27일 1군에 콜업됐지만, 3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했고, 이후 약 한 달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33타수 6안타, 타율 0.181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 감독은 김호령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지난달 29일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를 앞두고 직접 배팅케이지로 찾아가 배탕 훈련 중인 김호령의 타격 자세를 교정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과거 퓨처스 총괄코치 시절 김호령의 타격 자세를 잡아주며 0.351 타율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이 감독은 "김호령이 자신만의 타격 느낌을 못찾는 것 같았다. 연습량은 엄청 많은데 하는 것에 비해 타격에서 안 나오길래 하나의 틀만 만들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았다"면서 "김호령은 우측으로 치면 안타가 안나오는 선수라고 생각했고 자세를 열고 있으니 타구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 잡힌다. 오는 것만 받아친다고 생각하면 스트라이크 존을 좁힐 수 있고 안쳐야 될 공을 구분해서 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감독의 특훈 결과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김호령은 지난달 31일 KT전에서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후 네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지난 3일 두산전에서는 4타수 3안타를 생산했고, 이 중 2루타가 2개였다.

이후 다시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주춤했지만, 김호령은 10일 삼성전 종료 후 자진해 특타를 요청했다. 이어 11일 삼성전에서 3회 안타에 이어 6회 2사 만루서 2타점 결승타를 날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공·수·주에 타격 능력까지 더하며 '5툴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김호령은 이범호 감독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호령은 "어제(10일) 경기 후 특타를 했을 때와 오늘(11일) 훈련 중에도 감독님과 타격에게 타격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특타 훈련부터 오늘(11일) 훈련과 경기까지 계속 같은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공수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타이거즈 김호령이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6회말 2타점 적시타로 결승타를 때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전국근대종경기대회 오늘 해남서 개막

오는 18일까지 6일간 열전
전·현직 국가대표 총출동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종경기대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에서 열린다.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근대종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차세대 유망주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정상급 선수들이 다수 출전해 이목을 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부 동메달리스트 성승민(한국체대)은 새로운 종목 구성으로 열린 지난 3월 월드컵에서도 장애물 경기 포함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차지하며 흔들림 없는 기량을 입증했다.

도쿄올림픽 남자부 동메달리스트 전웅태(광주광역시청) 역시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장애물 경기에 공식 출전한다. 그는 종목 개편 이후 변화된 경기 포맷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들은 승마 종목이 제외되고 새롭게 도입된 '장애물 경기'를 포함한 근대종 전 종목을 소화하며 변화하는 근대종의 흐름을 현장에서 이끌 전망이다.

장애물 경기는 70~80m 구간에 설치된 8개의 다양한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는 형태의 신체 능력 기반 종목이다.

민첩성, 순발력, 지구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며, 기존 승마 종목이 가진 제한 요소를 극복하고 종목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근대종연맹(UIPM)이 도입한 변화다.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종경기대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승마 대신 새롭게 도입된 장애물 경기 모습.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는 전국 종합대회로, 차세대 한국 근대종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등장이 기대된다.

경기는 수영, 펜싱, 레이저런(사격+육상), 복합장애물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레이저런 종목(14~16일)은 대한근대종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최동환 기자

전상현, KIA 최초 4년 연속 10홀드

11일 삼성전 1이닝 무실점 호투
D-6… '100홀드' 카운트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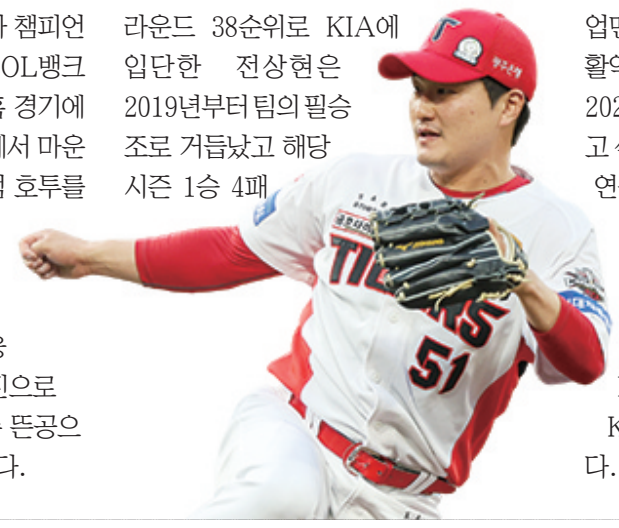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의 필승조 전상현(28·사진)이 팀 최초로 4년 연속 두자릿 수 홀드를 기록했다.

전상현은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7회초 무사 1·3루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2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팀의 6-3 승리에 기여했다.

전상현은 변화구와 직구를 골고루 섞어 던지며 삼성 김영웅과 박병호를 연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했다. 이어 강민호를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불을 껐다.

전상현은 호투와 함께 값진 기록도 세웠다. 이날 시즌 10번째 홀드를 챙겨 4년 연속 10홀드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KBO리그 15번째이자 타이거즈 사상 최초 기록이다.

지난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 38순위로 KIA에 입단한 전상현은 2019년부터 팀의 필승조로 거듭났고 해당 시즌 1승 4패 15홀드 평균자책 3.12를 기록하며 신인왕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2020년에는 문경찬 대신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았고 2승 2패 15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 2.45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정해영이 마무리 투수가 되자 그는 셋업맨으로 돌아갔으며 계속해서 필승조로 활약하며 기록을 써내려갔다. 2022년과 2023시즌 각각 16홀드, 13홀드를 기록했고 심지어 지난해 19홀드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두자릿 수 홀드를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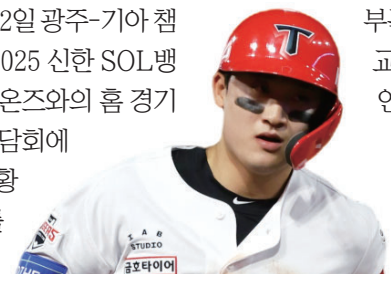


이제 전상현은 개인 통산 100홀드 고지를 앞두고 있다. 통산 94홀드를 기록 중인 전상현은 앞으로 6번의 홀드를 기록하면 100홀드가 된다. KBO리그에 홀드 개념이 도입된 이래 KIA에서 100홀드에 오른 선수는 없었다. **민현기 기자**

KIA 윤도현, 손가락 골절로 이탈… 재활에 4주 이상 소요

KIA 타이거즈의 '도니살' 김도영에 이어 윤도현(사진)까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다.

이범호 KIA 감독은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7회초 1·3루 위기 상황이 와서 더블 플레이를 생각하기 위해 교체했는데, 들어오면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 체크해보니 검지가 골절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비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 부분에 타구에 공을 맞았고 교체 직후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두번째 손가락 중위지골(중간마디뼈) 원위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은 필요없으나 회복 기간에는 4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KIA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이 감독은 지금 있는 선수들로 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민과 김규성 중 경기날 마다 컨디션을 보고 적합한 상황에 따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한창 뛰어야할 나이인데 금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도 1년에 한 번씩 손을 다친다.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골절은 다시 붙지만 본인이 경기 플레이 할 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